

‘태풍루사’ 그 긴박했던 순간들

손진봉*

먼 곳 수마가 지나간 별관을 바라보니 며칠 전만 해도 누렇게 익어 수확만을 기다리는 곡식으로 가득찼던 논밭은 그 경계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와 자갈로 덮혀 있고, 농민의 이마에 길고 깊게 패인 물살의 흔적과 같은 수많은 주름살을 남기고는 한줌의 희망도 남김없이 휩쓸고 간 태풍 ‘루사’가 원망스러웠다.

추석이 지난 밤하늘엔 아직 달이 둥글고 환하다. 지금으로부터 24일 전의 밤과 너무 대조스러운 밤이다.

부드러운 달빛이 비좁은 창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기억 저편에 묻어둔 2002년 8월 31일 밤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내가 근무하는 지레면은 김천에서 승용차로 20분정도 떨어져 있고 노인층이 많은 전

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 우회로는 평소 성인남자 무릎까지 깊이의 ‘감천’이라는 지방천이 흐르고 있고, 이 감천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약 1.5킬로미터 정도의 긴 둑이 있어 웬만큼 내리는 비에도 마을은 온전했다. TV에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차가 물살에 휩쓸리고, 도로에서 뗏목을 타고 다니는 장면을 볼 때면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바라보며 평온하게 지내 온 마을이다.

2002년 8월 31일 아침부터 퍼붓는 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미 태풍 ‘루사’가 북상중이기에 당연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근무를 했고 마을 또한 조용했다.

오후 3시경 순찰차를 타고 얼마나 물이 불었을까 하는 호기심에 감천둑에 이르렀을

* 경북지방경찰청 김천경찰서 지레파출소장(경위)

때, 급격히 불어난 거센 물살이 마을 상류 쪽의 독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순간 독이 무너지면 마을이 잠긴다고 생각하니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왔다.

어느새 독을 때리던 물살은 가끔 독을 타고 넘기도 했다. 밤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지금 독을 넘고 있는 물살은 틀림없이 마을을 덮칠 것이 분명하기에 파출소에 돌아와 직원들을 재촉하여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지레면 4백 50가구 주민 8백 여명을 초등학교, 면사무소, 마을회관에 나누어 대피시키고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오후 4시 30경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독이 물살에 못이겨 약 4백미터 가량 뚫렸고 시벨건 황톳물이 마을로 밀려오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전기와 모든 통신망이 두절되고 또한 도로가 침수되고 유실되어 지레면은 완전히 고립된 것이다.

이윽고 지레면 상부리 약 60가구가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곳곳에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집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대피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이미 어두워진데다 허리까지 오는 흙탕물과 독에서 몰아치는 물살을 뚫고 온갖 힘을 다해 이집저집을 뒤집어 13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 것이 밤 9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허리까지 오는 물살을 헤치며 파출소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침수된 가구들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고, 물 깊이는 알 수 없을 정도이고, 물살의 힘은 지쳐버린 우리를 휩쓸고도 남았기 때문에 제발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깊은 물살을 헤치기 위해 그리고 만일 있을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스티로폼 3개를 겹쳐 뗏목을 만들었고 손전등 하나에 어느순간에 물살에 휩쓸릴지도 모를 서로를 위해 줄을 잡고 비명소리나는 곳으로 향했다. 점점 거세지는 물살을 헤치며 20여 가구를 뒤집었을 쯤, 김모개(75세)씨가 중풍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 정운선(68세)씨만 남겨두고 대피할 수 없어 노부부는 침수되는 집의 방에서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부부를 스티로폼 뗏목에 태워서 마을회관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밤 11시경이었다.

아련히 타고 있는 촛불 사이로 주민들의 한탄하는 신음과 눈가에 맺힌 눈물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웅성거림으로 가득찼다. 이들 속에서 “문손조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손조 할머니는 80세로서 치매가 있으며, 정신장애인 남동생 문병연(77세)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대피

한 주민들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문순조 할머니가 사는 집은 뚫린 독과 그렇게 멀지않은 곳에 있어 물살이 셀 뿐만 아니라 침수가구 중에서도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순조 할머니와 남동생 문병연이 살아남아 있을지 의문스러웠고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그 곳까지 도착하여 구해낸다는 것은 절망적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었다. 아니 이제는 내자신의 육체도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았고 더구나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랑스런 가족들을 생각 하니 선불리 나서고 싶지 않았다.

촛불에 반짝이는 수많은 눈빛들은 호소하듯 의지하듯 나를 향해 있었고, “네가 경찰이기에 마땅히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노”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한 눈빛이 싫었고 금방이라도 제복을 벗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 또한 우리 경찰이 아니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쳐있는 직원들을 다독거리며 문순조 할머니집으로 향했다.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검은 물살은 우리의 육체를 조금씩 조금씩 삼켰고 어느새 가슴만큼 물살이 차 올라와 얼굴을 때리곤 했을 때쯤 우리는 스티로폼 뗏목을 붙잡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거센 물살에 각종 오물, 쓰레기와 부딪히면서 미끄러운 스티로폼을 붙잡고 있는 것 만으로도 힘든데다가 신과 옷을 입고 헤

엄까지 쳐야 한다는 것은 남을 구조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이었다. 30분정도 헤엄을 쳤을까 우리는 문순조와 남동생 문병연이 방안의 장롱에 목을 걸친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정신장애자 문병연을 스티로폼 뗏목에 묶어 밖으로 끌어냈고 재차 치매가 있는 문순조 할머니를 구조하려 하자 집안에 귀중품과 가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의 손을 뿌리쳤다. 불어나는 물살과 도움의 손길을 만류하는 문순조 할머니의 몸부림은 기력이 다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고 오히려 답답함에 울고싶은 심정이었다.

몸부림치는 할머니의 팔다리를 강제로 붙잡고 스티로폼에 태워 끌어내어 1시간이 넘는 구조를 무사히 끝냈고, 자정이 넘어서야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우리와 문순조 할머니 남매를 기다렸고 일제히 박수와 환호로 우리를 맞았다.

무사히 고귀한 생명을 내가 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암흑과 물살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승리감의 뿌듯함에 나도 모르게 핑도는 눈물을 참으며 주민들과 함께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글 재주의 한계로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긴박한 순간 순간이 떠올라 몇 번이고 멈춰지는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이러한 우리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은 한 주민이 모두가 알아주어야 한다며 중앙일보에 투고하였고, 중앙일보를 본 '두손봉사회(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봉사단체)'에서 건빵 200봉지와 격려의 편지, 그리고 대구신암여자중학교 국어교사 정순옥님과 학생들로부터 40여통의 정성어린 편지를 한통한통 읽는 순간 가슴 북받쳐 오르는 행복과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 당시 위험했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경찰 동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읽어주길 바라며 국민은 누구보다도 경찰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국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당부 말씀으로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